



새둥지를 틀게해준 1억원 당첨

부산이 직장인 김모씨는 경주에 있는 부인과는 한달에 두번정도 만나는 딱한(?) 신세다. 그러나 우연히 긁어본 자치복권에서 1억원에 당첨, 이제 한가족 같이 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주에서 컴퓨터 대리점을 했던 김모씨는 2년만에 대리점 문을 닫았다. 적자에 적자를 거듭한 대리점은 김씨에게 몇 천만원을 날리게 했다. 당장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둘이 있는 김씨는 다른일을 알아보아야만 했고 다행히 친척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직장이 부산에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없었다. 가족과 떨어지더라도 당장 일이 급한 것이었고 불경기라 일자리도 없는 판에 이일저일 가릴 처지가 못되었다. 김씨는 부산에 있는 친척집에 일단 머물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경주에 있는 집은 한달에 두어번 정도 들렀다. 경주에 있는 전세금을 빼 부산에 전세를 얻으려했지만 마땅한 집이 없었고 아이도 경주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던 터라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총각도 아니고 나이들어 친척집에 장기적으로 머물수는 없고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돌파구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터졌다. 김씨는 자치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이다.

『경주집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산 복권을 고속버스 안에서 긁는데 1억원에 당첨된 거예요. 당장 차를 세우고 다시 경주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버스를 세울수도 없고 차안에서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당첨소식을 전하자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차안에서 그야말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견디겠더라구요』

김씨는 당첨금과 전세금을 합쳐 김해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채를 살수 있었고 지금은 회사까지 출퇴근하며 가족이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다.